

하나님이 주실 상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창립 26주년 에브리데이교회
임직 감사 예배

창립 26주년을 맞은 노스리지에 있는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가 4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피택 장로 3명, 명예장로 5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9명, 명예권사 2명을 임직했다.

이날 브리지 워십의 찬양으로 시작된 임직예배에서 존 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김예림 자매의 특송에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하고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와 김종옥 목사(국제총회 상임 총무)가 축사를 전했다.

손창민 목사의 집례 하에 임직서약 및 안수, 임직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임직자 대표로 인사를 전한 성제환 장로는, “장로로 피택된다는 점에 대해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시간이었다. 처음 에브리데이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내에게 이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내 자신의 믿음에



노스리지에 위치한 에브리데이 교회(손창민 목사)는 4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창립 26주년 기념 임직예배를 드리고 피택 장로 3명, 명예장로 5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9명, 명예권사 2명을 임직했다. ©기독일보

대해서는 자신도 없었다. 장로라는 직분도 멀게 만 느껴졌다. 장로로 피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찾아왔다. 그래도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직식에 앞서 주일예배에

서 히브리서 11장 24절~26절을 본문으로 “버림과 포기의 믿음”(믿음이란 무엇인가 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세상에서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물질이든 뭐 명예든 뭐 성공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을 얻기 위

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애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

서워한다.”

그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제자들의 버림과 천국의 상급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한 채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부에게 있어 생명줄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급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음으로 봄야 한다.”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섬김이 진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에브리데이교회 헤세드 장학생 모집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에서 미주 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금액은 인당 \$4,000이며, 미주 내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인 풀타임 신학생은 지원할 수 있다.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교회에서 마련한 5박 6일간의 HESED TRIP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장학생들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한 미주 교회들과 주요 랜드마크를 탐방하게 되며, 비행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일정 경비는 교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김민선 기자 →3면에서 계속

기독교 단체,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 어린이 2만 명 송환 촉구

4개월에서 17세까지 아이들

정치적 재교육, 강제 동화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신앙단체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납치한 약 2만 명의 어린이를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군이 2022년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2만 명의 어린이를 납치했

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또 “4개월에서 17세까지의 아이들이 정치적 재교육, 군사훈련을 받고 러시아 사회에 강제 동화됐다. 또 많은 아이가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거나 출생증명서 변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말소당했다”며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적절한 음식과 보살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의 핵심 안건으로 (납치된)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자녀를 부모가 안고 있다. ©pbs.org

우크라 어린이들의 귀환을 포함해 달라”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평

화 협정도 체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면에서 계속

신미쉘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 7 Day 24hours (213)400-6363

마동환 변호사 그룹 | 213.820.3704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법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환 법률상식
■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 마동환 변호사 그룹 |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설비비의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설비비의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5 OC교계연합
부활절연합예배**

일시 2025년 4월 20일(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나침반교회** (민경엽목사 시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714) 909-0933
교협 총무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다시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5장 5절

미디어협찬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일보 크리스천비전 사람과사회(People & Society)
공동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THE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미주복음방송 미주복음방송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하늘바라기



구속의 삶

- 김은주

세상의 철장은
암탉과 공포뿐이다하나님의 결박은
자유와 평화 뿐이다성령의 구속으로
더욱 견고하며 행복하다주님께 꽁꽁 묶인 삶은
마냥 기쁘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 성료

가온 갤러리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한 선교사 자녀를 위한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이 지난 3월 25일 튜르키예, 마다가스카르, 태국, 베트남, 멕시코, 요르단, 미얀마, 일본, 파akistan 등 35개국에서 선교사 자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재능을 선보였다. 제1회 <HOPE 미술 공모전>의 대상은 국 하영(태국, 17세)의 '생명의 빛'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나하린(케냐, 20세)의 '미래를 향한 날갯짓'과 배하은(필리핀, 16세)의 '무덤가 아이'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1,000), 장려상(\$500) 5명, 소망상(\$300)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5,500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초 \$10,000의 상금이 계획되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한 것에 감동한 주최측은 상금을 증액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지원을 전했다.

한 것에 주최측이 감동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가온갤러리 제니퍼 흥 디렉터는 "각 작품마다 신앙 고백과 꿈이 담겨 있었다. 신앙의 1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4월 12일(토) 오후 4시 가온갤러리에서 개최되며,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해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는 영상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시상식 일정

일시: 4월 12일(토) 오후 4시

장소: 가온 갤러리(6188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문의: GBC 714-484-1190, 가온갤러리gaonartgallery@gmail.com

H.O.P.E
미술공모전

'전 세계 35개국 80명 참여…'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들이 빛나는 재능을 선보였다. 대상에는 ▲태국 국화영(17세) '생명의 빛'이 선정되었으며, 공동 최우수상은 ▲케냐 나하린(20세) '미래를 향한 날갯짓' ▲필리핀 배하은(16세) '무덤가 아이'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5명, 장려상 5명, 소망상 10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태국 국화영(17세) '생명의 빛'
▲최우수상: 케냐 나하린(20세) '미래를 향한 날갯짓'
▲최우수상: 필리핀 배하은(16세) '무덤가 아이'

상금 \$15,500으로 확대 및 참가자 격려

수상자들에게는 총 \$15,500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초 \$10,000의 상금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한 것에 감동한 주최측은 상금을 증액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지원을 전했다.

선교사 자녀들의 꿈과 소망, '가온의 빛' 공모전에서 예술로 표현

이번 공모전은 선교사에서 환경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선교사 자녀들이 자신 꿈과 소망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기 위해 기획된 만큼, 80여 점의 작품 속에는 아이들이 혹은 삶의 어려움과 성장의 고역, 그리고 그들이 꿈을 담기 있었고 버려온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심을 염려해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이 담겨 있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 미술 공모전이 35개국 선교사 자녀 8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GBC

2025 나눔On 지원금 전달식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LA산불 피해자, 미얀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난민 지원, 동행과 상생, 퍼스트펭귄 11단체, 발달장애 컨퍼런스 지원, 긴급 지원 예비금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3월 21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나눔On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총 175,000달러 모금, 다양한 지원 진행 올해 총 175,000달러가 모금되었으며, 기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LA산불 피해 지원: \$50,000 ▶전쟁 난민 사역 지원(미얀마,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30,000 ▶퍼스트 펭귄(지역사회 금융단체) 11곳 지원: 각 \$5,000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 \$20,000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지원: \$10,000 ▶긴급 지원 예비금: \$10,000

전달식은 '2025 나눔On 프로젝트'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대한 감사예배로 시작됐다. 한기홍 목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의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다"고 전하며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전해지는 물질 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쟁 난민 사역 선교사들과 Pasadena Community Foundation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광섭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과 군인들, 버려진 고아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후원해주신 미주의 성도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물질과 함께 복음이 실려서 잘 전달되도록 복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5 퍼스트 펭귄으로 처음 선정된 '러빙하트'의 그레이스 서 대표는 "그동안 선교단체로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외로울 때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게 돼, 하나님이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감동이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곱의 우물가 선교회' 조순미 대표는 "10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때마다 하나님 이 채워주실 걸 알면서도 바닥난 잔고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은데 매월 필요한 5천불이 이번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정확히 채워졌다"며 눈물을 쏟았다.

'Altogether in Love'의 양한나 대표는 늘 눈물로 기도해왔는데 5월 행사를 앞두고 500명의 참석자를 위한 식사 비용이 마련되었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해왔다.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도 "팬데믹 이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후원이 많이 끊겨서 매월 예배처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와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마음 졸이며 지내왔는데, 이번 지원금 덕분에 당장은 쫓겨나지 않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살롬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의 나눔On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지역사회 선교단체들에게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다. 더 힘을 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사랑의 빛 선교, 라구나힐스 장학생 선발

사랑의 빛 선교교회 마감 5/4(주일)

사랑의 빛 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장학생을 5월 4일(주일)까지 모집한다.

1) SEED 장학금: 사랑의 빛 선교교회 등록교인 및 자녀로서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문의는 lolmc.SEED@gmail.com로 하면 된다.

2) 엘림 장학금: 미주목회자자녀 및 선교사 자녀로서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문의: lolmc.ELIM@gmail.com로 하면 된다.

3) 장단육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2025년 신학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신학대학원생(M.Div Only)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문의: lolmc.JTO@gmail.com로 하면 된다.

라구나힐스 교회 마감 6/20

라구나힐스 교회(담임목사 린학준) 장학회(회장 박종수)에서 2025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후보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금년도에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다.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에 통과하면 2차 인터뷰를 거쳐서 선발한다.

장학 지원서는 라구나힐스 교회 홈페이지(www.lagunachurch.com, 이메일 lagunakumc@gmail.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2면 기사 <기독교 단체, 러시아>에 이어서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지정학적 협상의 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들의 안전, 존엄성, 가족과 재회할 권리 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 작성은 전미복음주의협회(NAE) 산하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릴리프(World Relief) 마이얼 그린(Myal Greene) 회장이 주도했으며, NAE 월터 김(Walter Kim) 회장, 종교와 민주주의연구소(IRD) 마크 톨리(Mark Tooley) 회장, 수잔 제이콥스(Susan Jacobs) 전 대사, '데일리 브레드 미니스트리' 샤론 윌리스(Sharon Willis), 가족연구위

원회(FRC) 트래비스 웨버(Travis Weber) 부회장,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랜드문화참여센터(Land Center for Cultural Engagement) 다니엘 달링(Daniel Darling) 소장, 그리스도연합교회(UCC) 로나 틴달(Rona Tyndall) 목사 등 다양한 신학적·정치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저항했고,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로부터 상당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받아 지금껏 항전해 오고 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2025년 부활절 새벽,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는 연합예배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이는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찬, 치유의 기도와 찬양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 20일(일) 새벽 5:30
장소 : 서울 국제 공원 야외 무대(올림픽과 아드모어 코너)

- 제 1부 예배 설교 Dr. John 미국인 목사님
- 제 2부 성찬식
- 제 3부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
- 제 4부 찬양 축제(헤세드 찬양 유통팀과 다수) 축도로 폐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라" (요한복음 11:25-26)

주관: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Tel.(213) 505-1947



남가주교계 부활절 새벽 예배로 모인다

미주 한인교회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려진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합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946년 창립된 조선기독교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신)와 주한 미군의 공동 주최로 1947년 4월 6일 새벽 서울 남산에서 15,000명이 모여 드린 이례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속되어 왔으며, 미주 한인교회도 이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아 부활절 새벽,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의 정신을 따라, 지역별 연합예배를 드린다.

LA, 평화교회

LA 한인 교회들은 4월 20일(주일) 새벽 6시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에서 드린다.

OC, 나침반교회

OC 교계는 20일(주일) 새벽 5시



지난해 충현선교교회에서 남가주교협 주관으로 열린 LA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기독일보

30분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1200 W. Lambert Rd, Brea)에서 민경엽 목사의 설교로 드린다. 문의는 OC

교협 총무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714-909-0933)에게 하면 된다.

LA동부 지역, 아름다운교회

LA동부지역은 20일(주일) 오전 6시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박선호 목사(늘 푸른교회)의 설교로 드린다.

베이커스필드 지역, 지구촌교회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20일(주일) 오전 6시 지구촌교회(25 Gamesy Ave, Bakersfield)에서 베이커스필드 교역자 연합회 주최로 드린다.

설교는 고의용 목사(베이커스필드 교역자 연합회 주최로 드린다.)가 말씀을 전한다. 토마스 맹 기자

사랑의교회 담임)가 맡았다.

라스베가스 지역: 중앙교회

라스베가스 지역은 20(주일) 오전 6시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임인철 목사, 7570 Peace way)에서 드린다. 설교는 조응철 목사(갈보리 장로교회 담임)가 맡았다.

한편, 고난주간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특별 집회를 여는 교회도 있다. 남가주동신교회는 4월 14일-18일(월-금) 저녁 7:30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를 연다. 김영길 목사, 송병주 목사, 백정우 목사, 남성수 목사, 백정우 목사가 각 요일에 말씀을 전한다.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는 4월 14일-19일(월-토) 특별 새벽기도회

를 연다. 주혁로 목사, 김경섭 목사

(OC영락교회), 박일서 목사(가나안 교회), 백남준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 지영환 목사(다우니제일교회), 김구민 목사(메릴랜드 벨립보교회)

가 말씀을 전한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기독군인회 정기예배 및 특강

부활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회장 심진구 목사, 부회장 김영석 목사, 고종필 목사, 김창국 목사) 정기 예배와 특강과 리셉션을 4월 12일(토) 오전 11시 라파엣 파크 플레이스 2층에서 개최한다.

예배와 특강 후에는 리셉션(사랑의 애찬 점심식사)과 인증서(상장, 표장, 감사장) 수여 세리머니도 한다. 설교와 특강은 최학량 목사(미주군목회 회장)와 샘신 목사(남가주 교협 회장)가 맡았다.

리셉션은 웨스턴 7가에 위치한 가든스위트호텔 1층 우미관 레스토랑에서 진행된다. 김민선 기자

장소 : 520 S. La Fayette Park Place #200 LA, CA 90057 (6가 + 라파엣 파크 플레이스, 사우스배일로 대학교 윗건물 2층, 주차장 넓고 무료 주차)

문의: 213-590-9191, 213-522-3276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노스리지에 위치한 새생명교회(지성은 목사)가 창립 및 통합예배를 6일 오후 4시에 드렸다.

2008년에 설립된 이 교회는 플리머 스트리트에 있는 안식일 교회, 성스테판 루터란교회를 거치며 지역사회 자녀들을 섬기며, 성장했으나, 코비드 팬데믹이 터져 교회가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이 고난을 계기로 그루터기 교회와 통합하게 되었다.

지성은 목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누가복음 19: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계속 세리장의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며 “분명한 것은 그는 욕심과 욕망을 갖고 살기에 급급했던 삭개오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어서, 옛날의 삭개오는 죽고 새로운 삭개오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삭개오라 불린 맹인백사겸 전도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복된 삶을 살겠다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 결단을 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을 삭개오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삭개오와 백



지성은 담임 목사. ©기독일보

사겸 전도사가 끊임없이 ‘내가 왜 사는 것이지?’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오늘 창립과 통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하고 있는지,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모임이 아닌지 스스로 묻고 도전해야 한다. 이 질문이 멈춰지는 순간, 더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질문과 도전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과 사명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관계자는, “그루터기에서 새생명이 자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했다.

교회는 샌페난도 벨리 아카데미 채플(Sanfernando Valley Academy Chapel 176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1면 기사 <에브리데이교회...>

에 이어서 신청기한은 4월 30일 동부시간 기준 자정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

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필수 서류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 미비 시 선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장민 목사는 이번 장학생 선

발에 대해 “동부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생겨난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이지만,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학기와 마지막 날까지 학비와 생활비로 늘 하나님앞에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곤 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에게 헤세드(Hesed)를 베푸셔서 학업을 잘 마쳤다”라고 소회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값 없이 받은 것이 참 많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소중한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 등 우리는 하나님께 거쳐받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다. 몇년 전 롯기서를 강해하며 헤세드란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는 것을, 남을 위해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 장학

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에브리데이교회는 ‘헤세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를 도왔고 (\$50,000), 교단 내 미자립 교회 6곳을 선정하여, 각각 \$15,000을 지원하기도 했다.

헤세드 장학생 모집을 위해 기

도하며 큰 의의를 두는 것은 손창민 목사 본인의 경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애정어린 손길이기도 하다.

손 목사는 “미국 내 신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 향후 2-30년을 내다보면 현재 신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소명받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는 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헤세드 장학금은 인당 \$4,000의 학비 지원과 함께 5박 6일간 Hesed Trip을 포함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차세대 교회들을 방문하며 시야를 넓힐 기회를 얻게 된다.

장학금 뿐 아니라 장학생들에게 더 큰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해 준비한 헤세드 트립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에브리데이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불들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온라인 지원 신청 : <https://forms.gle/KcGT3VppUpeYX6Pi8>

서류 제출 : admin@churcheveryday.org

장학금 신청 문의 : hyesungkim@churcheveryday.org (김혜성 목사)

2025 동부한인교협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리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2025년 4월 20일 6:00AM

설교 : 박선호 목사(늘 푸른교회)

장소 :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주최: 동부 한인교협의회

EASTERN KOREAN CHURCH ASSOCIATION

회장: 최현규 목사(주님 Church)

부회장: 홍충수 목사(나성한미 교회)

이스라엘 컨퍼런스, 교회의 마지막 시대 사명 다룰 것(2)

뮤지컬영화 '롯기 One New Man'의 최혁 목사 인터뷰

(지난호 955호 4면 기사에 이어서)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4월 22일부터 25일(화~금) 매일 오전 8시 50분~저녁 9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적의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현재 이스라엘 사역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 강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5일에 감람산 대합장제 설령회(9시) 및 기독교 최초 뮤지컬 영화 '롯기 One New Man'(오후 2:30)이 상영된다.

영화 '롯기 One New Man'를 감독한 최혁 목사가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LA를 방문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임을 강조했다. 기독일보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최혁 목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뮤지컬 영화 롯기 '원 뉴 맨'을 소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4월 22일부터 25일(화~금)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기독일보

개한다면.

롯기를 효부 이야기로 해석하면 구약 롯기에 대한 답을 신약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롯기 속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중요한 방법이 예언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롯기를 뮤지컬이라는 감성적인 그릇에 담아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 전한다면 훨씬 더 쉽고 새롭게 롯기의 올바른 해석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영화는 현재 막바지 작업을 하다. 4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은혜교회에서 첫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를 통한 선교비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티켓을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더 할 말씀이 있다면?

2000년 전 선민사상에 빠져 이방인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현신과 순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단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진 유대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통해 온 열방을 위한 밀알이 되게 하셨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의 피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씨앗들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흩어지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흩어짐이 전 세계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원점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

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완성이었다.

이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들의 흩어짐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방인 교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의 예언서들, 이스라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한다.

2000년 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복음의 길을 로마제국이 깔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교회들이 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토마스 맨 기자 컨퍼런스 문의: 유태일 목사(310-720-2512), 이명이 목사(714-336-8995)



OC민족학교에서 장애, 비장애청소년을 위한 난타교실을 연다. ©krcla.org

자폐 청소년을 위한 난타교실

오렌지카운티 민족학교(620 N Harbor Blvd, Fullerton)가 장애/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둠 북 난타교실을 새롭게 시작한다.

지난 1년간 난타교실을 운영해온 김영란 강사는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바탕으로 북을 두드리는 합주를 통해 활동적인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폐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신명나는 리듬과 몸동작으로 정서적 교류와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소정의 수업료가 있지만 장애 청소년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타교실은 매주 월요일 12시반, 5시, 6시 세번 운영되며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주디 한 기자

문의 전화 714-986-5957

고난주간 '십자가' 찬양과 묵상

라크라센타 어노인팅교회(신경섭 목사)는 4월 19일(토) 오전 11시에 '십자가' 찬양과 묵상 시간을 갖는다.

고난주간을 맞아 교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십자가를 전시하고 '나의 십자가' 간증 시간에 이어 성찬으로 마무리 한다. 또, 플루트, 색스폰 연주와 발달장애인 악기 연주 및 찬양 순서가 있다.

어노인팅 교회 신경섭 목사는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부활절 하루 전 십자가 묵상 시간을 갖는다. 바쁘고 소란한 바깥 소리를 멀리하고 조용히 주님의 십

자가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민자의 삶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인이 이 날 이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을 돌아보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오래 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나를 위하신 것이었고,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그분

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기대한다"라고 초대의 말씀을 전했다. 교회 주소: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문의 224-622-9183



어노인팅교회는 십자가 묵상을 위한 찬양 집회를 연다.

→ 1면 기사 <기독교 단체...>에 이어서 서명자로는 NAE 회장 월터 킴,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 회장 마크 터너, 오바마 시대 전 대사 수잔 제이콥스, Our Daily Bread Ministries의 샤론 윌리스, Family Research Council의 트래비스 웨버, Southwestern Baptist Theo-

logical Seminary의 Land Center for Cultural Engagement의 다니엘 달링, United Church of Christ의 로나 틴탈 목사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의 핵심으로 어린이들을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

는 것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ERLC 회장인 브렌트 레더우드는 침례교신문에 "기독교인들은 국내외의 취약계층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직면한 심각한 불의를 지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열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기애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BTSSolar

시니어 건강칼럼 - 노자극과 치매

“약물 없이도
뇌를 깨우는
TMS 치료법”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일상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뇌 건강은 나이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우울증, 인지 저하, 수면 문제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뇌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약물 없이도 뇌를 자극하고 회복을 돋는 과학적 치료법, TMS(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가 그 해답으로 떠 오르고 있다.

TMS란 무엇인가?

TMS는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즉 경두개 자기 자극이라는 의미로, 두피에 부착한 특수 장비를 통해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장을 보내 신경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는 뇌의 기능 중 기분 조절, 집중력, 기억력, 의욕 등을 관찰하는 영역을 자극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TMS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마취나 절개 없이 진행되며 통증이 거의 없는 비침습적 시술, 일상 복귀 가능,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 소화기, 심장, 간 기능에 부담이 없음, 그리고 정신과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효과적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전문의의 시술이 중요한가?

TMS는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는 시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부위에, 어떤 강도로, 얼마나 자극할 것인지’는 철저한 임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 뇌는 수많은 기능이 정밀하게 분포된 복잡한 기관이다. 따라서 무작정 자극을 준다고 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자칫 잘못된 부위에 자극을 주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피로감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TMS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평가하고,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해야 하는 고도화된 시술이다.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치료

센터메디컬클리닉은 정신과 전문의 고제득 박사의 진료와 TMS 시술을 직접 담당한다. 고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우울증, 불안 장애, 기억력 감퇴,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뇌 건강 문제에 맞춤형 TMS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제득 전문의는 이렇게 강조한다. “TMS는 단순한 기계 치료가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정확히 진단하고, 뇌의 어떤 회로를 자극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의 TMS 치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단, TMS 적합성 평가 및 뇌 자극 포인트 설정, 알맞은 회당 치료 진행, 치료 중간 경과 체크 및 맞춤 조정. 정확한 진단, 안전한 장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의의 손길,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TMS는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TMS는 누구에게 효과적인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 항우울제 부작용이 심하거나 장기 복용이 어려운 환자, 기억력 저하, 무기력,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된 노년층, 약 없이 뇌 기능 개선을 원하는 사람등.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TMS가 우울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며, FDA에서도 그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 받았다.

(고제득 주치의가 상담하는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리튼 클리닉 / (714)519-3024 / 1955 W Malvern Ave, #A, Fullerton, CA 92833
가든그로브 클리닉 / (714)583-8569 /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로렌하이츠 클리닉 / (626)363-4661 /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새한글성경’, 다음세대 위한 최적의 번역”

대한성서공회, 8일 출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가 8일 서울 중구 소재 영락교회(김운성 위임 목사) 본당에서 지난해 12월 10일에 발간된 「새한글성경」(이하 새한글)의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환영사를 전한 권의현 사장(대한성서공회)은 「새한글성경」은 다매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히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된 새로운 성경"이라며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성서공회는 격동의 시기마다 한국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번역하고 보급해 왔다. 「새한글성경」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새로운 번역 성경을 읽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히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박동현 번역자(「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는 "「새한글성경」은 2천년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한국어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 동포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섭기도 록 번역한 성경"이라며 "심포지엄이 「새한글성경」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동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 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박형대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새한글성경」 출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진행 사진.

원)가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유선명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가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이승문 교수(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이수인 교수(아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권순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가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새한글」 구약 번역의 세 가지 특징

먼저, 김동혁 교수는 「새한글」 구약 번역의 세 가지 특징에는 문장 내 도치, 화자와 말의 종류 표기, 다양한 화계 등이 있다"며 "먼저, 문장 내 도치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조금 희생시키지만, 원문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며, 둘째로 「새한글」이 과감하게 번역 속에 화자와 말의 종류를 명시한 것은 한국어 독자가 성경의 내용과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

며,셋째로 다양한 화계를 활용한 것은 국어학적 의의는 물론 성서학적 의의까지 지닌다"고 했다.

◇ 다음세대, 「새한글」 통해 하나님을 이해·사랑·경외하길

박형대 교수는 "우선 「성경원문 연구」에 다양한 색채의 글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한글」이 저본, 문법, 표현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맞이하면 한국어 번역 성경이 발전할 것을 시사한다"며 "다음 세대가 「새한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대조 성경의 출간과 보급

유선명 교수는 "사실상 한국교회의 공적 본문이 된 개역개정은 성경의 독자들이 세대교체를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한글」이 다음세대에 친숙해지는 만큼 기준 세대에게는 생경함이 더해지는 필연적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며 "공예배시 성경봉독을 이중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지향성을 현실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조 성경의 출간과 보급"이라고 했다.

◇ 「새한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승문 교수는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알파세대와 MZ 세대를 위한 최적화된 성경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성경의 번역 방향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공동체에서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경 읽기는 정기성과 지속성이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활용법"이라며 "삶과 독서가 상호작용해야 하며, 몸짓과 말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가 삶에, 삶이 독서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경 읽기를 단순한 독서가 아닌 복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이라며 "「새한글」을 통한 성경 읽기와 듣기가 다음세대의 영성 유지와 창조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 「말씀의 번치 않는 본질」, 어떻게 각 시대의 매체 안에 담아낼 것인가?

이수인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성경 번역본 「새한글」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번역본은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이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 즉시성 등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됐다"며 "디지털 텍스트는 접근성과 확산력, 유연한 업데이트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읽기의 피상성, 인지 부하, 자율성 훼손, 파편적 소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새한글」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설계된 번역본임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역사는 대체보다 공존과 접합의 과정을 반복해왔다"며 "성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형식을 통해 독자와 교회 공동체를 잇는 통로가 될 수 있

다"며 끝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번치 않는 본질을 어떻게 각 시대의 매체 안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술의 진보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경 번역본 이해도 조사… "개역개정" 보다 「새한글」 문법 쉬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경 번역본의 이해도 비교 조사에서, 최근 출간된 「새한글」 성경이 문법적으로는 기준의 「개역개정」 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희 교수는 최근 다문화가정 증가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의 이해도를 비교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 유무에 따라 텍스트 이해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비기독 유학생은 두 번역본 모두에 대해 2점에서 10점 사이로 응답해 이해도 편차가 커고, 기독 유학생은 5점에서 10점 사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특히, 한자 문학권 유학생들은 「개역개정」에 포함된 한자어 덕분에 추론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옛 말투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한글」 성경은 고유어가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문법 구조와 문장은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도치 표현이나 시적 문장처럼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요한 기자

폭스뉴스 “尹 탄핵은 中 영향력 확대 전략 중 일부”

미국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가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5일(현지시각) 중동 미디어연구소(이하 MEMRI) '안나마하르-바르두치(Anna Marjah-Barducci)' 선임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MEMRI는 중국의 중동 내 이권을 위한 전략을 꾸준히 연구해 온 단체다. 바르두치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오랫동안 지원과 조종을 받아온 친중 인사들과 극명히 대립된다"며 "이는 한국 내 친중 세력을 키우려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중국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 공공연한 경제 협력과 정치 자금 후원, 심지어 '불법 성상납'까지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마니아와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이 출마가 금지된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페틴'"이라며 "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무기화됐다"고 했다. 그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하는 중국 매체의 태도에 대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하고 (brimming with pride)", "매우 기뻐하고 있다(extremely pleased)"며 "중국은 이미 친미 성향의 박근혜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침

투와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미쉘 기자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тен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트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탈보트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트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 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he King of Kings,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 세계 시장 두드린다

엔젤 스튜디오, 예수의 삶을 담은 오는 11일 개봉

부활절에 맞춰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The King of Kings〉는 고전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장성호 감독의 이 영화는 마크 해밀, 우마 서먼, 피어스 브로스넌을 비롯한 스타급 성우진을 자랑하며,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들 윌터 디킨스의 상상력 넘치는 시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솔하게 재해석한다. 용서, 이해, 그리고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마다 가족에게 읽어주던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 "예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1934년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출판됨)에서 영감을 받은 은 독특한 서사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영화는 케네스 브래너가 목소리를 연기한 디킨스가 어린 아들 윌터(로만 그리핀데이비스)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을 따라간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월라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은 고대 예루살렘의 세계에 푹 빠져 예수의 탄생, 가르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작 역량으로 완성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출과 프로듀싱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국내 VFX(시각효과) 1세대

전문가로 〈공동 경비 구역 JSA〉, 〈해운대〉 등 짙직한 한국 영화에서 시각효과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함께 제작을 이끈 김우형 감독은 〈1987〉, 〈암살〉, 〈고지전〉 등 다수의 흥행작을 촬영한 촬영감독으로 BAFTA 촬영·조명상, 청룡영화상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제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CG/VFX 전문 기업 모팩 스튜디오(MOFAC STUDIOS, 이하 모팩)가 맡아, 섬세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연출을 구현해 냈다. 모팩은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아티스트와 테크니션들이 모여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핵심 인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약 250여 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VFX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운대〉, 〈역도산〉, 〈화산고〉 등 200편 이상의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에 참여한 모팩은 업계 최초로 편집팀, FX팀, 기술 개발팀(R&D)을 구성하고 자체 파이프라인과 작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효율 제작 환경을 실현해 왔다. 최근에는 VFX 기반의 버추얼 플랫폼 서비스와 IP 콘텐츠 제작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크리에이티브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

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영화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모팩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이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장성호 감독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 '만왕의 왕'에서 새롭게 풀어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어린이의 눈을 통해 희망, 사랑,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힘을 재발견하고자 했다.

이 영화에는 유명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해 각 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우마 서먼은 캐서린 디킨스의 목소리를, 마크 해밀은 헤롯 왕의 목소리를, 피어스 브로스넌은 본 디오 빌라도의 목소리를, 포레스트 휘태커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이들의 연기는 감동적인 울림을 더하며, 관객들에게 이야기 속 매 순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엔딩 타이틀곡 'Live Like That'은 브로드웨이 스타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맡아 감동을 더한다.

체노웨스는 뮤지컬 〈위키드(Wicked)〉에서 글린다 역으로 주목받았으며, 토니상과 에미상을 모두 수상한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다. 체노웨스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



찰스 디킨스가 미완으로 남긴 "예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 포스터입니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탐구하는 영화에 음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직업적, 개인적 이정표입니다"라고 전했다.

영화 리뷰 사이트 ghmoviefreak에서, 토니 아산코마는 "다르게 이야기된, 가장 위대한 이야기(The Greatest Story Ever Told, Again

but Differently)"라는 제목의 리뷰를 게재하며, 이 영화는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설교조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력 있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썼다.

김진영 기자

박한수 목사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 돼”

6일 제자광성교회 주일예배서 설교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6일 주일예배에서 '싸움의 기울-더 치명적인 내부의 적'(갈 5: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됐다. 공산화됐다"며 "북한의 남한 적화 야욕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 '요즘 세상에 북한의 남파 간첩이 어디 있나'고, '간첩이 있다'고 하면 시대 좌오적이라고 비난하고 빙정거리기 일쑤"라고 했다.

이어 "공산화의 1% 확률만 있어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

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며 "나라의 안정에 관한 문제다. 간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경계심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알다시피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체포했는데 재판을 5년 끌었다가 풀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위험한 이유는 그게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간첩질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더 치명적인 적은 내부의 적이다.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내부의 분열이 너무 심하다. 아무리 빌려죽일 원수라도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중국 등의 편을 드는가"라고 했다.

박 목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언론 뒤에는 노조가 있다. 반기독교적 세력이 장악한 노조의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가. 공산주의의 뒷배경에는 마귀가 있다"며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북한이 선교사를 받아들였는가. 중국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나라인가. 러시아가 그런가"라고 되묻고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언론에서 교회를 때려잡고 나쁜 것만 부각하고 무슨 문제만 일으켜도 아무개 목사라고만 나온다. 그 사람이 이단인지 짜지도 않고 문제만 있으면 목사라고 나온다"고 했다.

박 목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언론 뒤에는 노조가 있다. 반기독교적 세력이 장악한 노조의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진리를 희석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전화론자들이 어떻게 신학교 강단에서는 가.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고, 이것을 보고 끌인 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옛날엔 그런 가르침을 하면 신학교 교수직에서 쫓겨났다. 그런 소리를 하면 교인들이 떠났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것이 많아져도 주류가 되면 문화가 되고, 법이 되면 정치가 되고, 정치가 되면 진리고 답이 된다"고 했다. 그는 "분명 겉은 것인

데 사람들이 자꾸 하얗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겉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70-80%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분명히 겉은 것인 줄 알면서도 기세에 눌려 말을 안하게 된다. 이런 거짓된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옛날에 저런 정도의 수준의 정치인이라면 한방에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버젓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건 우리들의 문제"라며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TV 기독일보 신양간증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양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 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양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미얀마 강진 사망자 3500명 넘어



미얀마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주민들 ©미얀마 사역자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3500명을 넘었으며, 부상자와 실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중앙(CC) TV는 미얀마 정부 발표를 인용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564명이 숨지고 5012명이 부상 을 입었으며, 실종자는 21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 이 크다. 지진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3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규모 7.7의 강진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건물 붕괴, 도로 파손,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유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재난 발생 이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해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며 이재민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5 일부터 6일까지 만달레이 지역에는 집중 호우가 이어졌고, 천막과 임시 쉼터에 머

물고 있는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폭우에 이어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피해 지역의 위생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지 구조팀은 하수가 범람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염병 감염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며, 구조대원과 이재민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정부와 국제 구조단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신망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크게 파손된 데다, 연이는 악천후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한된 외부 지원 속에서 미얀마 내부에서는 긴급 구호물자 확보 와 의료 대응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생존자 보호를 위한 위생 물품과 식수, 임시 주거 공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라나이지리아 보코스 지역 야간 습격… 기독교인 11명 숨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비공식적인 국내실향민(IDP) 수용소로 피난했거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이지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마이두구리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기독일보 DB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SMS 나이지리아 중부 보코스(BOKKOS) 카운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야간 습격으로 기독교인 11명이 숨졌다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T는 이번 공격은 풀라니(FULANI)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중에는 임산부와 그녀의 남편, 10세 소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센(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루위(RUWI) 마을에서 45분간 이어졌으며, 주민들이 향년 87세의 지역 원로를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다.

CT는 현지 주민들은 나이지리아 당국이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격이 벌어진 장소 인근에는 나이지리아 군과 기타 보안 인력이 주둔해 있었으나,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공격이 사전에 예고되었고, 이를 당국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나이지리아 지부 도 성명을 통해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당국의 무대응으로 시민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일럼 마나세 무트팡(CALEB MANASSEH MUTFWANG) 플래토(PLATEAU)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이번 잔혹한 공격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애를 향한 공격”이라며 “책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지리아 마쿠르디(MAKURDI) 지역의 윌프레드 아냐베(WILFRED ANAGBE) 주교는 영국 상원에 출석해 나이지리아 내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크리스마스 학살이 “관례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냐베 주교는 영국 정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실향민 귀환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 여부를 외교 및 경제 관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정년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월, 금 오후 7:30
- 토 오후 9: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세번기도회(화~금)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진로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자녀기도회 오후 6: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c@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자녀기도회 오후 6: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설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OMC 종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개부 오후 1:30 교육관 427호
토요예배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일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부예배 오후 1:30 청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주총보기도회 오후 10:00 본당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영우마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하이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1:30 교육부 오후 11:30

이황영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영유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국윤권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영유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org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 1부예배 8:00am 주일 EM 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9:30am 새벽기도회 7:30pm
주일 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 교육부예배 11:00am 주중 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로예배(아침)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현대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성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당목사



열반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새움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오전 11:15
4부예배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주혁로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자라나는 삶



댄 멜젤 목사.©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댄 멜젤 목사의 기고글인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You need this key feature to grow as a Christian)를 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멜젤 목사는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온에 있는 리디머 루터 교회(Redeemer Lutheran Church in Papillion)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구세주의 훈련된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사실, 우리가 훈련을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며, 이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정의)에서는 이미 도달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성화). 정의는 회심의 순간에 완성되지만, 성화는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다.

제자도의 삶 속에서 세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순간순간 기쁘시게 하려는 삶 속에서 더욱 순종하고 훈련된 삶을 살아가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명백히 ‘진행 중인 작품’이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영적 훈련이 부족한 영역이 있는가? 훈련되지 않은 삶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훈련된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평화의 하나님임이라”(고린도전서 14:33). 그러므로 특히 생각의 삶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려면 훈련된 마음이 필수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베드로후서 3:1).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며 성령의 통제 아래 물들도 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사고는 영적 건강의 핵심 요소이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이 탈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경험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베드로는 예수 위에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갔다”(처음엔 괜찮았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태복음 14:29-30). 베드로의 훈련된 마음과 강한 믿음은 처음에 그를 물 위로 걸게 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덮쳤다. 그리고

최승연 기자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부,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부(AKUS-ATL, 회장 오대기, 이사장 주중광)는 최근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직의 향후 비전과 실천 계획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박효은 수석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대기 회장의 동상 건립 경과보고, 주중광 이사장의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윤준 기자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다시금 두려움에 굴복했다(요한복음 18:15-27 참조). 이처럼 베드로의 굽은 행동은 그가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채택한 굽은 생각의 수치스러운 표현이었다. 보시다시피, 전장은 바로 ‘생각’이다. 마음속에 질투, 정욕, 두려움 등을 허용할 때, 말(거짓말, 협박, 분노 폭발 등)과 몸(폭력, 성적 죄, 탐식 등)으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영적 성장이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언 25:28). 반대로, 성령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욕망을 굽복시키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니라”(갈라디아서 5:22-2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곧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마태복음 14:31). 아마 당신도 한때 어리석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신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인내와 성품, 영적 성숙을 만들어 가신다(로마서 5:3 참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13). 성경 읽기,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섬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영적 성숙을 돋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다섯 가지 거룩한 실천이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났을 때(요한복음 3:3-8; 디도서 3:4-6 참조), 예수님이 당신 마음의 보좌에 오르셨다(로마서 6:1-18 참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라디아서 2:20)라고 말했다. 불행히도, 믿는 자는 때때로 다시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한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된 욕망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 채, 옛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금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상시적 위험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둑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여”(시편 19:14).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도우신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후서 10:5). 바울은 또 이렇게 힘 있는 통찰을 나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셨다”(디도서 2:11-12).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다(에베소서 2:8-10 참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각과 행동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필요성과, 영적 성장을 돋는 거룩한 습관들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매일 새롭게 배워가야 할 것이다.

최승연 기자

각 인사들은 한미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언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향후 활동 의지를 강조했다.

오대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미연합회는 한미 간 연합 동맹을 극대화해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침례기도회(미지역)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세번 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 8부 예배 9부 예배 10부 예배 11부 예배 12부 예배 13부 예배 14부 예배 15부 예배 16부 예배 17부 예배 18부 예배 19부 예배 20부 예배 21부 예배 22부 예배 23부 예배 24부 예배 25부 예배 26부 예배 27부 예배 28부 예배 29부 예배 30부 예배 31부 예배 32부 예배 33부 예배 34부 예배 35부 예배 36부 예배 37부 예배 38부 예배 39부 예배 40부 예배 41부 예배 42부 예배 43부 예배 44부 예배 45부 예배 46부 예배 47부 예배 48부 예배 49부 예배 50부 예배 51부 예배 52부 예배 53부 예배 54부 예배 55부 예배 56부 예배 57부 예배 58부 예배 59부 예배 60부 예배 61부 예배 62부 예배 63부 예배 64부 예배 65부 예배 66부 예배 67부 예배 68부 예배 69부 예배 70부 예배 71부 예배 72부 예배 73부 예배 74부 예배 75부 예배 76부 예배 77부 예배 78부 예배 79부 예배 80부 예배 81부 예배 82부 예배 83부 예배 84부 예배 85부 예배 86부 예배 87부 예배 88부 예배 89부 예배 90부 예배 91부 예배 92부 예배 93부 예배 94부 예배 95부 예배 96부 예배 97부 예배 98부 예배 99부 예배 100부 예배 101부 예배 102부 예배 103부 예배 104부 예배 105부 예배 106부 예배 107부 예배 108부 예배 109부 예배 110부 예배 111부 예배 112부 예배 113부 예배 114부 예배 115부 예배 116부 예배 117부 예배 118부 예배 119부 예배 120부 예배 121부 예배 122부 예배 123부 예배 124부 예배 125부 예배 126부 예배 127부 예배 128부 예배 129부 예배 130부 예배 131부 예배 132부 예배 133부 예배 134부 예배 135부 예배 136부 예배 137부 예배 138부 예배 139부 예배 140부 예배 141부 예배 142부 예배 143부 예배 144부 예배 145부 예배 146부 예배 147부 예배 148부 예배 149부 예배 150부 예배 151부 예배 152부 예배 153부 예배 154부 예배 155부 예배 156부 예배 157부 예배 158부 예배 159부 예배 160부 예배 161부 예배 162부 예배 163부 예배 164부 예배 165부 예배 166부 예배 167부 예배 168부 예배 169부 예배 170부 예배 171부 예배 172부 예배 173부 예배 174부 예배 175부 예배 176부 예배 177부 예배 178부 예배 179부 예배 180부 예배 181부 예배 182부 예배 183부 예배 184부 예배 185부 예배 186부 예배 187부 예배 188부 예배 189부 예배 190부 예배 191부 예배 192부 예배 193부 예배 194부 예배 195부 예배 196부 예배 197부 예배 198부 예배 199부 예배 200부 예배 201부 예배 202부 예배 203부 예배 204부 예배 205부 예배 206부 예배 207부 예배 208부 예배 209부 예배 210부 예배 211부 예배 212부 예배 213부 예배 214부 예배 215부 예배 216부 예배 217부 예배 218부 예배 219부 예배 220부 예배 221부 예배 222부 예배 223부 예배 224부 예배 225부 예배 226부 예배 227부 예배 228부 예배 229부 예배 230부 예배 231부 예배 232부 예배 233부 예배 234부 예배 235부 예배 236부 예배 237부 예배 238부 예배 239부 예배 240부 예배 241부 예배 242부 예배 243부 예배 244부 예배 245부 예배 246부 예배 247부 예배 248부 예배 249부 예배 250부 예배 251부 예배 252부 예배 253부 예배 254부 예배 255부 예배 256부 예배 257부 예배 258부 예배 259부 예배 260부 예배 261부 예배 262부 예배 263부 예배 264부 예배 265부 예배 266부 예배 267부 예배 268부 예배 269부 예배 270부 예배 271부 예배 272부 예배 273부 예배 274부 예배 275부 예배 276부 예배 277부 예배 278부 예배 279부 예배 280부 예배 281부 예배 282부 예배 283부 예배 284부 예배 285부 예배 286부 예배 287부 예배 288부 예배 289부 예배 290부 예배 291부 예배 292부 예배 293부 예배 294부 예배 295부 예배 296부 예배 297부 예배 298부 예배 299부 예배 300부 예배 301부 예배 302부 예배 303부 예배 304부 예배 305부 예배 306부 예배 307부 예배 308부 예배 309부 예배 310부 예배 311부 예배 312부 예배 313부 예배 314부 예배 315부 예배 316부 예배 317부 예배 318부 예배 319부 예배 320부 예배 321부 예배 322부 예배 323부 예배 324부 예배 325부 예배 326부 예배 327부 예배 328부 예배 329부 예배 330부 예배 331부 예배 332부 예배 333부 예배 334부 예배 335부 예배 336부 예배 337부 예배 338부 예배 339부 예배 340부 예배 341부 예배 342부 예배 343부 예배 344부 예배 345부 예배 346부 예배 347부 예배 348부 예배 349부 예배 350부 예배 351부 예배 352부 예배 353부 예배 354부 예배 355부 예배 356부 예배 357부 예배 358부 예배 359부 예배 360부 예배 361부 예배 362부 예배 363부 예배 364부 예배 365부 예배 366부 예배 367부 예배 368부 예배 369부 예배 370부 예배 371부 예배 372부 예배 373부 예배 374부 예배 375부 예배 376부 예배 377부 예배 378부 예배 379부 예배 380부 예배 381부 예배 382부 예배 383부 예배 384부 예배 385부 예배 386부 예배 387부 예배 388부 예배 389부 예배 390부 예배 391부 예배 392부 예배 393부 예배 394부 예배 395부 예배 396부 예배 397부 예배 398부 예배 399부 예배 400부 예배 401부 예배 402부 예배 403부 예배 404부 예배 405부 예배 406부 예배 407부 예배 408부 예배 409부 예배 410부 예배 411부 예배 412부 예배 413부 예배 414부 예배 415부 예배 416부 예배 417부 예배 418부 예배 419부 예배 420부 예배 421부 예배 422부 예배 423부 예배 424부 예배 425부 예배 426부 예배 427부 예배 428부 예배 429부 예배 430부 예배 431부 예배 432부 예배 433부 예배 434부 예배 435부 예배 436부 예배 437부 예배 438부 예배 439부 예배 440부 예배 441부 예배 442부 예배 443부 예배 444부 예배 445부 예배 446부 예배 447부 예배 448부 예배 449부 예배 450부 예배 451부 예배 452부 예배 453부 예배 454부 예배 455부 예배 456부 예배 457부 예배 458부 예배 459부 예배 460부 예배 461부 예배 462부 예배 463부 예배 464부 예배 465부 예배 466부 예배 467부 예배 468부 예배 469부 예배 470부 예배 471부 예배 472부 예배 473부 예배 474부 예배 475부 예배 476부 예배 477부 예배 478부 예배 479부 예배 480부 예배 481부 예배 482부 예배 483부 예배 484부 예배 485부 예배 486부 예배 487부 예배 488부 예배 489부 예배 490부 예배 491부 예배 492부 예배 493부 예배 494부 예배 495부 예배 496부 예배 497부 예배 498부 예배 499부 예배 500부 예배 501부 예배 502부 예배 503부 예배 504부 예배 505부 예배 506부 예배 507부 예배 508부 예배 509부 예배 510부 예배 511부 예배 512부 예배 513부 예배 514부 예배 515부 예배 516부 예배 517부 예배 518부 예배 519부 예배 520부 예배 521부 예배 522부 예배 523부 예배 524부 예배 525부 예배 526부 예배 527부 예배 528부 예배 529부 예배 530부 예배 531부 예배 532부 예배 533부 예배 534부 예배 535부 예배 536부 예배 537부 예배 538부 예배 539부 예배 540부 예배 541부 예배 542부 예배 543부 예배 544부 예배 545부 예배 546부 예배 547부 예배 548부 예배 549부 예배 550부 예배 551부 예배 552부 예배 553부 예배 554부 예배 555부 예배 556부 예배 557부 예배 558부 예배 559부 예배 560부 예배 561부 예배 562부 예배 563부 예배 564부 예배 565부 예배 566부 예배 567부 예배 568부 예배 569부 예배 570부 예배 571부 예배 572부 예배 573부 예배 574부 예배 575부 예배 576부 예배 577부 예배 578부 예배 579부 예배 580부 예배 581부 예배 582부 예배 583부 예배 584부 예배 585부 예배 586부 예배 587부 예배 588부 예배 589부 예배 590부 예배 591부 예배 592부 예배 593부 예배 594부 예배 595부 예배 596부 예배 597부 예배 598부 예배 599부 예배 600부 예배 601부 예배 602부 예배 603부 예배 604부 예배 605부 예배 606부 예배 607부 예배 608부 예배 609부 예배 610부 예배 611부 예배 612부 예배 613부 예배 614부 예배 615부 예배 616부 예배 617부 예배 618부 예배 619부 예배 620부 예배 621부 예배 622부 예배 623부 예배 624부 예배 625부 예배 626부 예배 627부 예배 628부 예배 629부 예배 630부 예배 631부 예배 632부 예배 633부 예배 634부 예배 635부 예배 636부 예배 637부 예배 638부 예배 639부 예배 640부 예배 641부 예배 642부 예배 643부 예배 644부 예배 645부 예배 646부 예배 647부 예배 648부 예배 649부 예배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대 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여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리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이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작용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투산 목회자 세미나 참석 후 부흥 경험

한인 적은 아리조나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 ‘제5회 목회자 세미나가’ 미주 현지 시간 3월 24일부터 27 일까지 아리조나 투산영락교회에서 열렸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총 25 개 교회에서 참석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교단을 막론하고 함께 모인 자리는 전도와 부흥의 이론적인 강의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나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역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더 나아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각 교회의 전도와 부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세번째 참석한 박상목 목사(시에라비스타 연합장로교회)는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2회의 세미나에 참석한 후 교재를 20번 이상 다시 읽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부임 당시 4명의 성도가 있던 교회가 2년이 지난 지금은 8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간증했다.

남가주어노인팅교회의 남상권 목사도 “작년에 참석한 경험

을 토대로 열심히 전도했더니 순수한 새신자를 10명 이상 전도하고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한인 인구가 매우 적은 아리조나 투산 지역에서 지난 20여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함께 누고 동역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세미나이다.

처음 시작은 이민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지경을 넓혀서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 제6회 목회자 세미나는 2026년 초에 전세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제5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산영락교회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삶의 위기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하시는 이들을 위한 강의가 4월 10일부터 시작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8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지속된다.

ICMM의 제임스 구(Dr. James Koo) 박사가 준비한 이번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강의는 병원, 군대, 교정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채플린(군목, 병원 목회자 등) 또는 영적 돌봄 사역자로 섬기기 위한 이론적 기초

와 실천적 준비를 제공한다. 내용으로는 1. 병원 채플린의 정체성과 소명, 2. 병원 시스템과 채플린의 역할, 3. 영적 돌봄의 원리와 실천, 4. 질병과 고난의 신학, 5. 임종

환자와 가족 돌봄, 5. 환자 유형별 영적 돌봄 등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대상은 채플린 사역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 선교지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역을 하고 계신 분 등이며, 등록은 ICMM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등록비는 \$100이다.

ICMM 홈페이지: churchhomepage.org/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 B115, Buena Park,

Chaplain and Spiritual Care Ministry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 Spring 2025
- 목요일 7시 8주간
- 현장, Zoom, 통신

Global Vision Univ
https://globalvision.unive

강의 내용 및 조건

영적 돌봄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 ✓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 ✓
영적 돌봄의 사명을 품고 계신 모든 분 ✓
Register Here!

949-667-0264, 714-393-4595
https://globalvision.university

CA, 90621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한미연합회 학생들, 모의유엔서 9개상 수상

총 19명 참가, 9개 상 수상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학생들이 지난 4월 5일과 6일에 걸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SCU)에서 개최한 SC-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9개의 상을 수상했다. 모의유엔 대회는 학생들이 국제 문제를 모의로 논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며 외교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19명의 KAC MUN 학생들이 참가해 사전에 배정받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8 개 위원회에서 국제적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부문에서는 위원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학생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레이첼 최학생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회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소피아 김학생은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준변 학생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에릭 최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USC에서 개최한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9개의 상을 수상했다. ©ksccla.com

학생과 유진 권 학생은 유엔아동 기금(UNICEF) 위원회에서 활약하여 장려상을 수상했고, 격려상

(Verbal Commendation)은 스테판 정 학생과 제이미 임학생에게 돌아갔으며, 레이첼 최학생과 시온 이 학생은 리서치상을 수상하였다.

모의유엔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민디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함께 주어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역할을 나누어 연

습한 노력의 결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미연합회가 지난 1983년부터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국제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회(kaccla.org) 기사제공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 | | |
|--------------------|-----------------|--------------------|
|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 부황 20회 (혈액순환) | - 훈육 1시간 |
| - 뜰 10회 (체온상승) | - 마사지 30회 |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심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뻐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뻐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선교 칼럼

사랑이 언어를 이긴다



최민기 선교사

파테말라 선교사

'진심이 열심을 이긴다' 저자

주여! 살랄라라라라라…… 디오스 에스 아모르 이 뿐에데스 크레르 앤 헤수스 이 모랄 엔엘 아모르!

"00선교사님이 방언을 하다가 그 나라 언어가 터졌다"

"정말? 우와! 나도 그렇게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신학교 때 들던 소문이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급히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현지인을 만나자 갑자기 방언이 터지며 그 나라 말로 대화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상은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언어의 장벽을 완벽히 뛰어넘지 못한다. 선교사들이 무능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악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흘으신 강력한 저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언어가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으로 갔을 때,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하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게 되었다. 대부분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들이었다. 담임 목사님은 한국어가 편하니 한국어로 사역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몇 주간 아이들과 지내보니 아이들의 Heart Language(마음의 언어)는 영어였고, 영어로 복음을 듣고 싶은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설교, 찬양, 기도는 영어로 하자!"

그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영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어가며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다. 거의 본문을 읽다시피 했지만, 설교, 기도, 찬양 모두 영어만 사용했다. 너무나 뿌듯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있

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대학생 중에 차분하고 성실한 자넷이라는 자매가 있었다. 자넷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자넷,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니?"

"음… 3~5%정도요…" 많이 잡아줘야 5%라는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100% 영어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말로만 하시다가 요즘 영어를 조금 섞어서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제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나는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아이들은 내 영어가 영어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회장을 불러 물어보았다. 비슷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나를 미국 신학교로 다니고 내 스스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없는 내 실력이 다 드러난 것이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언으로 언어가 터졌다는 선교사님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했지만, 영어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았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셨다.

'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알았지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학생 중에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데이빗은 처음에는 거절하며 왜 꼭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캐물었다. 나는 데이빗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똑같이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부족하여 자주 실수하여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아침을 차려주시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도 주셨다. 베드로의 삶은 단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낮아짐 속에서도 변치 않은 예수님의 인내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나도 내게 맡겨진 양들이 굶어 메마른 삶을 살지 않도록 먹이고 싶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식을 주고 싶었다. 초식 동물에게 육식을 먹일 수 없고, 매일의 양식을 인스턴트로 때울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고, 나의 진심이 데이빗에게 전해졌다. 데이빗이 말했다.

"전도사님은 멋진 분이었군요, 제가 돋겠습니다"

나는 데이빗에게 내가 작성한 영어 원고를 보냈다. 데이빗은 내가 영작한 문장들을 보고,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 가운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낸 영어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와 표현들, 문장 구조는 영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나는 데

세, 뛰어 읽기 등 전반적인 리딩능력이 엉망이었던 것이다.

"데이빗 안 되겠다. 원고를 네가 읽고 녹음해서 나에게 보내줘. 내가 그것을 듣고 연습해서 설교해 볼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데이빗의 목소리를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지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데이빗의 것과 비교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과 발음을 고쳐나갔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자넷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사님 예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영어가 뭔가 달랐어요"

"오늘 말씀 와닿았어요,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자넷이 와서 말했다.

"이제 90%정도는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당 뒷 뜰에 가서 흙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빗도 변하는 나의 모습에 기뻐하였다.

"데이빗 너무 고마워,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너를 사용하셨어. 하나님께 너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 이후 우리 가정은 매주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집이 좁고 누추했지만, 무엇이든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었다. 부족한 형편에도 뉴포트비치 새벽 수산물 시장에 가서 계와 새우를 잔뜩 사 와서 아이들을 먹였다. 아이들이 물었다.

"왜 저희에게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네녀하지도 않으실 텐데요?"

"그냥…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소통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다. 결국 언어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이 언어를 이긴다! 하나님께서 흘으신 것은 장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을 떠나기 전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함께 여행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었다.

미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우리집 앞으로 몰려왔다.

"목사님은 '진짜'였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16)



파테말라 San Miguel Mitas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술을 지도했다. 맨 앞줄 가운데가 최민기 선교사의 아내인 양정현 선교사.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
50개 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213-434-1170)
Email : chdailyl@gmail.com
www.j1mart.com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나태주 미스터트롯 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 | 오후 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트로트 디너 콘서트 티켓 선물 이벤트



[이벤트 안내]

“우리 부모님을 꼭 이 디너쇼에 모시고 싶은 이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분께 디너쇼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접수 마감: 4월 1일
- 당첨자 발표: 4월 4일(기독일보)
- 사연보내실곳 : kticketbox@trinity-m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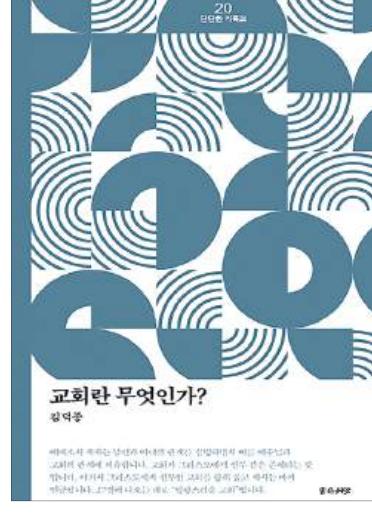
지금 사연을 보내시고,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세요!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목회자가 알려주는 교회의 의미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지적하는 한 가지 표현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에 이어, 김덕종 목사의 책을 두 번째로 읽게 됐다. 인천 동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김 목사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읽고 서울성경신학대학교대학원 최순봉 총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목회자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여러 상황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편안한 문제로 풀어냈습니다(6쪽).”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평가는 바로 ‘목회자의 눈, 목회자의 언어’라는 부분이다. 이 책엔 교회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그것을 마치 목회자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듯 풀어냈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자는 93쪽에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피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기 위해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탄에게 핏값을 치러 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93쪽).”

화목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흡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화목제물의 목숨값은 누구에게 치르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신 쓴 잔, 그것에 담긴 저주와 심판은 사탄의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가?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못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사탄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을 살려 저자가 말하려고 한 의도, 즉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한 것은 옳지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기 위해”라는 말은 대대적인 점검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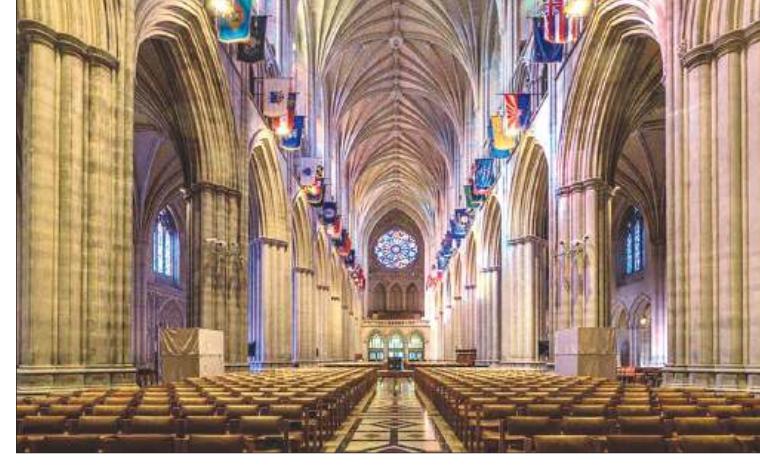
그 외에는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다. 김덕종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건물이 아니라 구속 받은 사람, 즉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1장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 무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했다(2장).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서로를 돋고 세우기 위함이고 그렇게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3장). 성경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룬 구성원을 가리킨다. 모든 집마다 가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4~5장).

저자는 매우 탁월하게 진리가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기둥과 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성경의 올바른 교리 위에 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진리에 충성하는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신다.

저자는 6장과 7장에서 교회의 성장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건강한 몸이 성장하기 마련이듯, 건강한 교회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성장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과정에 충실하면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주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은 자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8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한다. 계시록에 기록된 열방의 친양을 인



워싱턴 국립 대성당 전경. ©페이스북

용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한 몸을 이루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 친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갓피플몰에서 조직신학 부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고(집간 동안이지만), 추천 신간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실 조직신학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매우 체계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때로 그 과정은 평범한 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보다 학문적인 설명을 원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목회적

인 관점에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바란다.

그런 면에서 김덕종 목사의 〈교회란 무엇인가?〉는 교회에 관한 ‘단단한 기독교’ 교리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네가 이제 나 말이 네가
응하는 여덟을 보리라
민수 11:23
Is the Lord's arm too short?
Now you will see whether or not
what I say will come true for you
Numbers 11:23



저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며,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임을 역설하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돋는다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WPC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공고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 총노회에서
전도사,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 고시 일자: 2025년 7월 12일 (토) AM 10시
 - 고시 장소: 조이풀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86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 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생으로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교 (M. Div)를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 목사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2025년 4월 18일 (금) 오후 5시까지
 - 전도사 고시 과목:
성경,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 헌법 (예배 모범, 정치), 면접.
 - 강도사 고시 과목: ① 제출 과목: 논문과 주제 및 설교.
② 시험 과목: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면접.
 - 목사 고시 과목:
12신조, 교회 헌법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정치), 면접
- * 문의처: 고시 부장 김정호 목사 (213-210-3877)
고시부서 김경식 목사 (213-909-3579)
* 타 교단도 고시 문의 요망.

Petra University
F-1 유학생 모집
B.Th., M.Div., D.Min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petrauniversity.org/wpc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World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LA 중앙 총노회 고시부 (LA Central Synod Qualification Exam Office)

총 노회장: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시 부장: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서: 김경식 목사 (직인생략)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송영 토크 셀럽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계시록> (2)

교회는 죄인들 오는 곳... 그런데, 누가 죄인인가?

성범죄자 권양래 교회 방문,
신앙 아닌 여학생 납치 위해
교회, 죄인들이 오는 곳이나
어떤 죄인인지 생각해 봐야

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어떤 죄인들을 말하는가?

영화 <계시록>의 두 번째 쟁점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교회가 죄인(실제 범죄자)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작중 소규모 개척교회 목회자 성민찬(류준열 분)은 자신의 교회에 권양래(신민재 분)가 처음 찾아오자,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교회 새신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힘을 쓴다. 그리고 권양래가 떠나려 할 때 그의 신발을 챙겨주다가, 권양래가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권양래는 경찰의 추적을 받는 성범죄자였던 것이다.

여기서 성민찬이 한 말이 아마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일반적 정서일 것이다. 성민찬은 권양래에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이러한 성민찬의 태도에는 “전과자든 아니든 교회를 찾아왔다면, 최대한 의심 없이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선의(善義) 넘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한국 개신교계의 지배적 정서로 굳어진 데는 여러 성경적·역사적 배경과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눅 15:11-31)나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교회사 전체를 돌아보면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복음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의 찬송시를 지은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 목사가 대표적이다. 포악한 노예상이었던 그는 노예제의 참혹함과 자신의 허물어진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죄과를 뉘우쳐, 성공회 목사로서 죽을 때까지 노예제 폐지를 위해 힘썼다.

문학작품과 대중문화 또한 교회가 전과자, 범죄자들을 환영하고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1862)이다. 주인공 장발장의 도둑질을 눈감아주고 그의 회심을 이끌어낸 미리엘 주교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처럼 여겨진다.

여기 언급한 사례들만 놓고 보면, 교회는 어떤 범죄자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일단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현실

에서는 교회가 이처럼 범죄자들에게 무방비한 태도를 보일 때 간혹 교회 신자들이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화 <계시록> 역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한다. 성범죄자 권양래가 성민찬의 교회에 방문한 것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여학생을 납치해서 학대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민찬과 권양래, 그리고 납치된 여학생과 그 가족들의 삶은 모두 손을 대기 힘들 만큼 비틀어진다. 성민찬은 목회자로서 통상적 교회의 정서를 따라 아무 문제없이 행동했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이들이라면 그들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한없이 관대하게 대해 야 한다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정서는 한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유래된 것이다. 성민찬이 권양래에게 한 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는 틀린 점이 없는 기독교적 명제다.

문제는 이 신앙의 명제를 구성하는 세부적 개념 정의에 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의 개념정립 방식이 문제가 된다.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 양태의 인간 군상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실제로 죄를 지은 자들, 지금 혹은 장래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성을 가진 자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죄인과 법적 관점에서의 죄인,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탄식을 가득 품은 자들 혹은 자신이 죄를 지은 탓을 남에게 돌리는 이들까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수많은 양태의 죄를 지은 인간 군상이 다 죄인이다. 대체 이 가운데 어떤 죄인이 교회가 환대해야 할 죄인인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러한 고민의 답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환대하신 죄인들은 모두 자기 죄에 커다란 가책을 느끼고 죄 사함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들이었다. 당연히 자신이 과거 지었던 죄를 다시 짓는 데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이다.

그倫즈에 의하면,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구속받은(redeemed)”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점이다. “교회는 죄로 인해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공동체이고, 오직 그렇게 죄를 극복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들만 도울 수 있다.”

그倫즈의 통찰을 따르자면, <계시록>의 권양래는 수긍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다시 저지르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다.

당연히 교회에서 절대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이다. 죄인 혹은 실제 범죄자의 교회 가입에 대한 환대와 경계심의 교차는 단지 그伦



▲ <계시록>의 한 장면. 종교개혁기 개신교회들은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가입할 때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목회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교회 신자가 될 수 없었다.

즈뿐 아니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온 사안이다. 사도들이 목회하던 초대교회는 이 점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

환영할 죄인과 수긍 못할 죄인을 구별하는 전통은 종교개혁기에 이르러 되살아났다. 갓 설립된 개신교회는 수많은 위협에 처해 있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군주들)과 함께 내부적 위협(개혁의 시기를 틈타 새로운 교리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에도 대처해야 했다.

그래서 이 시기 개신교회들을 보면, 교회

에 새로운 신자가 가입할 때 철저한 검증(며칠에 걸친 신앙상담과 일정 기간의 신앙생활 관찰)을 거쳤고, 목회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교회 신자가 될 수 없었다.

이런 검증 과정은 같은 개신교인들에게 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종교개혁에 찬동하는 개신교 신자라도 신앙 내용이 크게 다르거나 신앙 열의가 떨어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교회 가입을 불허했다.

이런 교회 전통은 1730년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크게 악화된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갖는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웨슬리의 전도 사역은 많

은 이들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충실했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

호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짝 개방되었다. 영국에서 크게 확산된 웨슬리의 부흥주의 사역전통은 조지 흥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를 통해 제

1차 대각성운동이라는 형태로 미국 전역의 교회들에 전파됐다.

그 결과 미국 회중교회나 침례교회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 대한 환대가 교회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이

부흥주의 전통 아래 성장한 19세기 북미 선

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한국 개신교회 역시 개방적 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

회개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죄인을 환대하는 정서 그 자체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정서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목회자들과 이를 악용해 교회의 틈을 노리는 범죄자다. 영화 <계시록>에 등장한 성범죄자 권양래는 다소 극단적 사례다. 하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교회의 자본이나 인맥 등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회개하려는 죄인 아니라 그저 죄인 그 자체로서 교회에 접근하는 이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교인들의 선의를 이용해 대규모 사기를 친 사기범도 있고, 신앙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결혼이나 연애를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교회 인맥을 이용해 사업이나 정치활동에 도움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다. 이들 모두는 교회가 환영해야 할, 주님께서 부르시는 죄인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개신교회는 북미 선교사들을 통해 자리잡은 부흥주의 전통을 따르는 동시에, 교세의 양적 확장을 목회의 절대적 성공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변형신학에 경도돼 거짓 죄인, 거짓 형제를 가려낼 최소한의 장치와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계시록>의 연상호 감독은 한국 개신교회가 가진 이 세밀한 약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목회자라면, 적어도 선량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교인들을 거짓 형제와 거짓 죄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감독이 전하는 질책의 메시지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교회는 죄인을 환대하지만, 죄를 수긍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죄는 미워해 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과 일맥相通한다.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봄맞이 세일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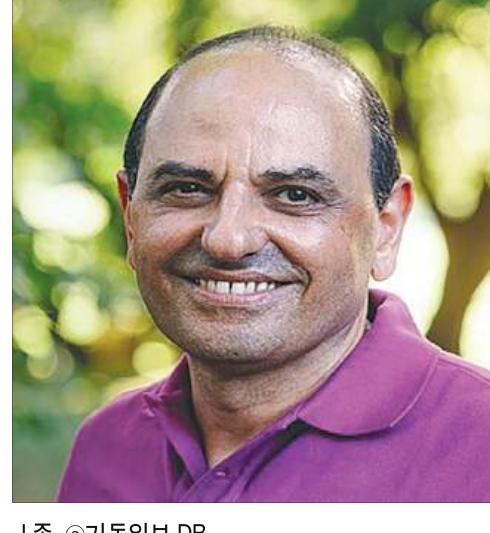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과 그 치명적 결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J.존의 기고글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보기'(Find out how close you are to being considered a fool)를 최근 게재했다.

J.존은 목사, 연사, 방송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 팟캐스트인 'J.John Podcast'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4월 1일은 일반적으로 만우절로 여겨진다. 그 중심에는 잘못된 신뢰가 있다. 우리는 어떤 뉴스 기사나 친구의 이야기를 믿고, 그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놀라게 된다. 끊임없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AI 생성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는 신뢰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주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역에서는 끊임없이 가짜 J.John 페이스북 페이지들과, 추악한 목적을 가지고 팔로워들에게 접근하려는 온라인 시도들과 싸우고 있다.

사실, 성경이 어리석음(fools)에 대해 말할 때는 결코 농담하지 않는다. 성경은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하며,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J.존. ©기독일보 DB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fool)'는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다 (마태복음 18:3-4; 마가복음 10:15).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란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고 지혜를 조롱하며 옳은 것을 보다 그를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 둘 다 맞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곧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하나님의 손실이 다른 여러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무신론은 세상과 존재, 삶 자체를 최악의 농담처럼 바라보게 한다. 존재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없으며, 우리는 먼지에서 왔다가 결국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는 너무나 무겁다. 그것은 모든 궁극적인 의미를 잃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삶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롭고 열등한 대체물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진다. 신학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했다. 정말 현명한 말이다.

인간은 본성상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다른 것인 소유, 부, 정치, 쾌락, 성, 권력, 명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한 우상들은 곧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지배하고,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요구로 인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짜 어리석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끌고 가며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무신론을 거부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 이상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란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회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길 바란다.

"140년 전 한 알의 밀알 되었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가 주일인 6일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같은 해 설립한 곳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비전선포식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예선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가 대회사를 전했고, 이정숙 장로(여선교 회전국연합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김정석 감독회장이 설교했다. 축도는 직전 감독회장인 이철감독이 했다.

박동찬 목사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140년 전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한국 땅에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셨다. 헨리 아펜젤러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스크랜턴, 로버트 하디, 그리고 제임스 훌과 로제타 훌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또 하나님의 밀알이요 복음의 씨앗이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오늘의 우리는 이들의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다. 그러기에 오늘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는 단순히 지난 세

월을 돌아보며 기념하는 자리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젠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회장인 김정석 감독회장은 인

사말에서 "140년 전, 영적인 어둠

에 갇혀 있던 조선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의 입국으로 근대식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으며 복음의 산실인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선교사들은 구한 말 세계열강들의 틈바구니속에서 고통받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선물했다. 교회의 복음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로 이어진 근·현대 역사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복음의 열정으로 비약적인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며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념의 대립과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 등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10년 후 맞

이할 선교 150주년을 그려 본다. 기념대회가 단순한 감사와 기억을 넘어 선교 150주년, 200주년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2부 비전선포식에 우크라이나에 구급차를 전달하고 아프리카에 어린이 급식비를 후원하는 순서가 있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천영대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 조보현 이사장(배재학당 이사회)의 축사, 비전 선포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감리교회 비전선포문'에서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운 학교와 병원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바꾸었고 민족 지도자 양성의 산실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에 초석을 놓았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다고 자부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 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랑하는
M음으로
G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기독교 역사 최초,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2026년 오순절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펼쳐질 주의 재림의 리허설, 마라나타 대합창제를 향한 두번째 대회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



대회장/담임 한기홍 목사

일시 2025년 4월 22일 - 25일

장소 LA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요일정

4.22(화)~4.24(목)

-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이스라엘 사역 거장들과의 만남
- 다양한 주제 강의와 패널 토크 쇼

4.25 (금)

- 2026년 오순절 감람산 마라나타 대합창제 설명회
- 이스라엘 글로벌 경제인 오찬 모임
- 기독교 최초 뮤지컬 영화 상영
-롯기 ONE NEW MAN
- LA 은혜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
(동양의 쉰들러 뮤지컬 '생명의 도장' 공연)

선택 사항

행사 이후 미서부 관광

신청 접수

이명이 목사 714-336-8995
(미국 현지 접수)
유태일 장로 310-720-2512

*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신청양식과 구글 접수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강사진



주최: L.A 은혜한인교회 & IN for ONE 국제본부 주관: IN for ONE & EI Emet
협력 단체: 남가주 침례교 지방회, O.C 교회 협의회, 중부 교회 협의회